

【 성인지감수성 학부모 교육 안내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의 성인지감수성 증진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알려와 학생과 보호자(학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운영 개요 ▣

- (검사기간) 2023년 7. ~ 10.
- (검사대상) 관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 (검사문항) 총 36문항(3유형) 고등학생 12문항, 교직원 및 보호자 12문항
- (검사참여방법)
 - 인터넷주소(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 참여 -

방법	URL	QR코드	비고
자가진단 개별접속	http://jbe.pms.or.kr/		본 진단검사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함

- (결과활용) 진단검사를 통해 검사자의 성인지감수성 자가 점검의 기회 부여
- ※ 응답완료 후 3단계 평가결과(훌륭해요!/좋아요!/노력이 필요해요!) 및 문항 해설 보기 즉시 제공



1. 성인지 감수성이란? :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2. 성 차이와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 1) 성차이란,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어 사회적 분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별, 피부색, 장애유무, 나이, 민족, 종교, 가족형태 등에서 무수히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 2) 성차별이란, 성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배제·제한을 말합니다.
- 3) 성별 고정관념이란,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가지며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 남성은 남자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자다워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대조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런 고정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녀가 다른 능력과 특성을 키워가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2.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이루는 '양성평등'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역할공감하기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 부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입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 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2) 자녀 양육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하기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OO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	여성스러움을 강요	"OO이는 독서할 때 제일 행복해보여"	행동, 노력에 대한 칭찬
"가족끼린데 속옷차림이 뭐 어때."	사춘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	심리적으로 친밀한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아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3.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 → '사람'은 집안일을 잘 해
남자는 리더쉽이 있어 → '사람'은 리더쉽이 있어

말줄 친 단어를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특정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었을 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차이와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성차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차별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말입니다.

*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니까 또는 남자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3. 8. 8.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장